

2023년 4월 16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 Now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to which Jesus had directed them. 17 And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doubted. 18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마태복음 28:16-20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온 세상 모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샌프란시스코 반도 언덕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도행전 Acts 16:16-19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6 As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slave girl who had a spirit of divination and brought her owners much gain by fortune-telling.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7 She followed Paul and us, crying out,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proclaim to you the way of salvation.”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 And this she kept doing for many days. Paul, having become greatly annoyed, turned and said to the spirit,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And it came out that very hour.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따르면 부활 이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계선교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전파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 여러 지역, 그리고 끝내 로마까지 이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직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복음전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후파(Hoopa)에 단기선교 다녀왔습니다. 오uckland 우리교회(Uri Church)와 연합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금문교회를 데일리시티 언덕 높은 곳에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팀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귀신입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proclaim to you the way of salvation.” 하며 여러 날을 지속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외친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이 알고 뱉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금문교회의 선교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다섯 가지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 사역 때 교회 앞에서 굿을 하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6 As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slave girl who had a spirit of divination and brought her owners much gain by fortune-telling.

선교 현지에 가면 지역의 토속신앙이나 토속종교에 관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문화와 선교” (Culture and Mission)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미 선교의 현장입니다.

게다가 미국사회가 기독교보다는 타종교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합니다.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는 결국 선교의 자세로 목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와 선교는 따로 된 주제라기보다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역동성을 요구합니다. 개교회의 목회 범위를 벗어나 타지역 타민족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 지역 사회와 전통, 문화와 “충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 하게 하시는 “복음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마태복음 Matthew 10:16

엘리아가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How long will you go limping between two different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then follow him!

열왕기상 1 Kings 18:21b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사도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로마서 Romans 12:2

만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 이나 “화평” 을 원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고난도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 있는 각종 신앙들을 인정해 준다면,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귀신이 압니다. 떨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Even the demons believe—and shudder!
야고보서 James 2:19

영혼구원 문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문이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7 She followed Paul and us, crying out,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proclaim to you the way of salvation.”

귀신들린 여자가 외칩니다. 그의 말은 액면 그대로 맞습니다. 1.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2.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나 그것이 복음전파는 아닙니다. 복음전파는 귀신의 입을 통해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말과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전파 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을 귀신의 손에서 귀신의 지혜로 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복음선교는 실패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외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양육 받은 성도가 외쳐야 합니다.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 And this she kept doing for many days. Paul, having become greatly annoyed, turned and said to the spirit,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And it came out that very hour.

바울과 선교팀은 그 귀신들린 여자의 선포를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실시하신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You mute and deaf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마가복음 Mark 9:25b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마가복음 Mark 16:17a-b

귀신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악령입니다. 해당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가 교회를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 귀신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3 “When the unclean spirit has gone out of a person, it passes through waterless places seeking rest, but finds none. 44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my house from which I came.’ And when it comes, it finds the house empty, swept, and put in order. 45 Then it goes and brings with it seven other spirits more evil than itself, and they enter and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So also will it be with this evil generation.”

마태복음 Matthew 12:43-45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복음과 전통문화의 충돌을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토속종교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상제사를 금하는 초기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후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후파교회가 품은 사명이 있습니다 후파에는 원주민들이 섬기던 주술신앙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Medicine Women이 있고, 그들의 역할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독교가 토속신앙과 결합한 “셰이커교회” 도 있습니다.

셰이커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Medicine woman이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후파교회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후파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와 제3위격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토속신앙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춤(traditional dance) 행사에 성도가 참여해도 되는지. 우리가 섬겨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화요일 성경공부 등 말씀양육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후파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후파교회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줄 압니다.

팬데믹 중에 우리교회 주일 1부 영어예배를 후파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7시에 후파 성경공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공부했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내가 지도합니다. 모레 화요일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금문교회가 후파교회를 위한 사역에서 “그리스도와 문화” 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예배, 화요일 성경공부, 방문선교, 그리고 여름성경학교(VBS) 등을 통해 성경말씀에 기초한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제 후파교회가 부흥하여, 스스로 성경공부와 부흥회 등 목회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점검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여종”을 영육 간에 해방시킨 의미입니다. 이 여종은 무명입니다. 주후 1세기 로마에서 여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혹했습니다. 게다가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주인들이 이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미친한 여자에게 참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귀신에게서 놓였습니다. 주인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일행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가는 곳마다 토속신앙과 로마제국 일대를 지배하는 헬라의 문화, 철학, 그리고 종교를 상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성경말씀에 기초하여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병원을 세워 육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회복센터를 세워 중독자들을 회복시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신앙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섬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마태복음 Matthew 11:28

금문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데일리시티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people’s feet.

1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15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in the house. 16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b]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마태복음 Matthew 5:13-16

금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